

## 스승과 제자의 人格的 融和

徐 培 植

(淸州大 哲學科)

스위스의 바젤대학 본관 입구에 돌로 조각한 石像이 하나 있다. 스승이 제자의 등 뒤에 서 있는 석상인데, 스승과 제자가 따로 떨어져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前面 부분과 제자의 등 부분이 붙어 있는 彫刻物이다. 스승은 등 뒤에서 제자를 오른손으로 다정스럽게 감싸주고 있고 제자는 왼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은 똑같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

이 彫刻物은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뿐 아니라 教育의 意味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다. 우선 스승의 態度인데 제자를 앞세워 놓고 뒤에서 보살피고 激勵하는 스승의 태도, 즉 한마디로 師道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같았다. 스승이 앞에 서서 제자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뒤에서 보살피 주는 사랑과 정성을 잘 표현한 것같다. 그리고 제자의 태도는 스승의 격려와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간직하려는 듯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다. 제자의 얼굴 표정도 스승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따르려는 다소곳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날 소위 公總會라는 것을 열고 어떤 교수

를 公開的으로 批判을 한다든가, 때로는 人民裁判처럼 교수로부터 公開謝過를 받아내는 모임, 그것도 시원치 않을 때는 暴力도 불사하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서글픈 생각을 억제할 수 없었다. 현재 우리의 교육 제도는 무수한 難題를 가지고 있고, 수시로 制度의 變革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그 변혁이 반드시 좋은 의미로서의 改進黨이 안 되는 것도 많다. 교육 제도상의 잘 잘못은 고사하고 教育의 正常化는 무엇보다도 師弟之間의 關係가 正常化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教育은 우선 가르치는 스승과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정상적인 만남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만남에서 師道와 師恩, 그리고 참된 教育이 實現될 것이다. 그러한 師弟之間의 根本關係가 흔들릴 때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요사이 어떤 측면에서는 學生이 선생을 감시하고 선생은 학생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師恩이나 教權이라는 말조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教育不在는 우리의 현실인 것같다. 또한 가르침의 恩惠를 생각하는 恩師나 스승이라는 개념은 사용하기가 쑥스러울 만큼 낯선 개념들이 되어 간다.

그저 학생과 선생뿐인 것 같다.卒業 전에 酬恩會 장소에 초대받은 교수들 중에서 그 사은회에 참석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酬恩會에 참석하기 싫은 이유가 많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서 褒言이나 批劄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있다고 한다.

본래 東洋思想의 傳統은 君師父一體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등등하게 尊重한다는 것이었는데, 近代化의 물결이 흘러 들어온 지 불과 백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傳統思想이 여지없이 파괴된 현실을 實感할 때마다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當然之論을 펴고 樂觀도 悲觀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젊은 세대들은 모두 既成世代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한다. 또한 현실의 그런 사태에 대하여 옳고 그른 判斷조차 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모든 교육 문제를 教育者의 責任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國家의 百年大計인 教育政策은 文敎部에서 수립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教育의 문제인 한 우선적으로 文敎部에 그 責任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眼目을 넓혀 보면 政府 자체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文敎政策도 전체적으로 현재의 政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最高의 목적에 맞추어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解放 이후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은 朝夕變異로 수 없는 改善과 改惡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리고 각각의 공화국들은 그 政府가 가지고 있던 最高 目標을 지향하는 教育政策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國家와 民族의 目標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政權維持를 각 政府들의 至上目標로 삼아 왔다. 그리고 교육은 그 政權을 維持하기 위한 侍女가 되어 왔다.

어떻게 보면 單一民族의 國家라던 數千萬代가

지난다 해도 그 국가와 정부의 最高 目標은 變動되어도 안 되고 변동될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 만일 잘못된 최고 목표가 세워진다면 그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政策은 그 잘못된 목표 달성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 때에는 문교부의 혼란하고도 創意的인 教育 目標까지도 그 잘못된 국가의 最高 目標 達成을 위해 목살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教育學을 專攻으로 하는 모든 教育學者들의 忠告는 馬耳東風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던 教育學者들은 뒤로 물러나 한숨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학자는 교육의 목표를 잃고 한낱 職業人으로 轉落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학자들에게 創意的 意欲과 勇氣를 주는 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그 날은 국가의 最高 目標과 政府의 最高 目標, 그리고 이상적인 教育 目標과 완전히 一致하는 때일 것이다.

독일에서 教授의 확고한 位置, 그리고 거의 절대적인 敎權을 보고 참으로 부러움을 느꼈다. 우리의 師弟之間의 관계가 君師父一體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요모양 요몰이 되었는데, 倫理와 道德도 모른다는 그들이 아직도 그렇게 바람직한 師弟之間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과 허전함을 또한번 느꼈다.

그 石像은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서 있지 않고, 또한 스승이 앞에서 제자를 이끌어 가는 모습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다. 스승이 제자를 앞세우고 뒤에서 돌보아 주는 石像이다. 그리고 스승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제자는 젊고 웅명한 얼굴을 하고 있다. 또한 스승의 키가 제자보다 약간 크게 조각되어 있다. 이 키는 學問의 키일 것이다. 학문적으로 큰 스승이 약간 작은 제자를 돌보는 것이다. 참다운 教育은 그 石像과 같이 제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으려는 제자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人格과 人格의 만남에서 참된

敎育은 이루어진다. 책이나 그밖의 敎育資料들을 통해서, 혹은 녹음 테이프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敎育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없는 그러한 敎育은 단순히 知識을 전달할 뿐이며 싸늘한 知識만을 쌓게 할 것이다. 그러한 知識은 컴퓨터나 로보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같다. 그러한 지식은 人間性이 排除된 지식이다.

제자는 스승 앞에서 創意的으로 眞理를 찾아 探究의 길을 가고, 스승은 뒤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 주며 때로는 忠告와 激勵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본래 敎育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같이 학생 스스로 眞理를 探究하는 것이며, 스승의 길은 산파처럼 학생을 도와 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스승은 학생 자신의 創意力을 맘껏 발휘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注入式 敎育은 創意力을 死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는 學問적으로 더 큰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제자가 스승의 학문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의 앞에 서야 한다. 만일 제자의 학문이 스승의 學問을 傳受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학문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제자가 스승의 학문을 넘어서실 만큼 學問이 높아졌을 때, 그는 다시 자기보다 키가 작은 제자를 앞세우고 제자를 돌보며 격려하여 眞理 探究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제자는 앞에, 스승은 뒤에라는 '만남'의 脈이 끊이지 않는 한, 그 나라의 敎育은 가장 바람직한 敎育 目標를 달성할 것이다.

제자는 왼손을 가만히 가슴에 얹고 있다. 스승의 가슴에서 제자의 가슴으로 통하는 人格과 人格의 만남에서 人格的 敎育은 달성될 것이다. 스승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려는 듯이 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그 가르침을

오래 오래 가슴에 간직하기 위해서 손을 가슴에 얹고 있다.

제자는 스승의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 가르침에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欽慕하는 다소곳한 모습이다. 이러한 師弟之間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참된 敎育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처음부터 不信하고 監視하며, 사랑과 존경이 없는 風土에서 참된 敎育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狀況에서는 단순한 知識은 전달될 수 있으나,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人格 敎育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師弟之間의 不信風潮는 참된 敎育을 不可能하게 만든다. 불신 풍조는 오늘의 敎育을 열려하는 뜻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쓰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다.

敎育은 반드시 스승이 제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傳授시키는 것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의 참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敎育은 첫째로 만남의 創造力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새로운 知識을 產出한다. 다시 말해서 스승이 처음에 전하려던 知識이 제자와의 만남의 創造力에 의하여 새로운 創造的 知識이 된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으로부터 傳受한 知識은 플라톤의 學問 이상의 것, 새로운 것이 가미된 창조적 지식이 된 것이다.

둘째로 스승과 제자의 人格的 만남은 만남의 創造力에 의하여 스승과 제자 모두의 人格的 變化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스승과 제자의 참된 만남은 스승의 人格이 일방적으로 제자의 人格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남의 創造力에 의하여 스승과 제자 모두의 人格이 創造的 變化를 겪는다. 즉, 참된 만남의 敎育에서 참된 人格的 敎育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孔子와 顏淵의 만남에서 스승과 제자 모두가 서로 人格的 感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과는 敎育 條件이 다르지만, 소크라테스

---

는 제자들과 만나 對話를 통하여 敎育하였다. 또한 「論語」, 「孟子」에서도 孔子와 孟子는 사람들과 만나 對話를 통하여 學問의 發展과 人格的 變化를 시도하고 있다. 실로 참된 만남에서만 참된 學問의 發展과 人格的 敎育이 가능하다.

敎育은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스승과 제자의

참된 만남에서 시작된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과 스승을 尊敬하는 제자의 만남에서, 서로의 人格的 만남에서 서로의 人格은 더 높고 崇高한 人格으로 變化해 가고, 그러한 人格的 만남 안에서 만남의 創造力에 의하여 學問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